

## ■ 2026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심의 2차 심의총평(전담심의)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전담심의)
- 회의일시 : 2026년 2월 12일(목) 16:30~18: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봉준, 구효서, 김지은, 장이지, 정대훈 심의위원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은 문학계에서 꾸준한 성과를 보여온 작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펠로우십으로 선정된 작가에게는 지원금을 비롯하여 예술위원회 플랫폼을 활용한 발표 기회, 창작 공간 제공,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연계 및 후속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는 한편 창작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한국문학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 사업이 한국문학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믿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심의는 1, 2차 심의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차 심의에서는 각 분야의 심의위원들이 총 4개 분야(시, 시조, 소설, 아동문학(동시, 동화, 청소년 소설), 수필)로 구분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선정 건수의 2배수 내외인 6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2차 심의는 1차 심의에서 선정된 61명을 대상으로 다섯 명의 심의위원이 신청 주체의 사업 수행 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문학 생태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4개 분야 30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2차 심의 과정에서는 신청 주체의 사업 수행 역량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 취지는 ‘펠로우십’이라는 표현에 응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업은 단순히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달리 문학계에서 꾸준한 성과를 보여온 작가를 집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10년 내의 활동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활동 기간의 차이 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 즉 10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지닌 작가와 비교적 최근에 등단하여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경력 차이가 고려될 여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꾸준한 성과로 판단되어도 좋은가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현황에 대체로 공감하여 차후에는 등단 연차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번 심의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사안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 분야에서 각 장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최근 수필 장르의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수필, 산문, 에세이 간의 경계가 넓어지며 다양한 장르의 작가가 수필 관련 작품을 출간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장르의 확장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그와 정반대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특히 타 장르의 작가가 수필 분야에 지원했을 경우 성과와 최근 10년 내의 활동을 수필 분야의 성취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성취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고유 영역과 다양한 장르에서의 활동 역시 고려하되 수필이 발전할 수 있는 역량과 계획들을 중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펠로우십’이라는 말의 의미와 위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제한된 수가 선정될 수밖에 없지만, 선정 여부가 곧 작가의 문학적 역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수필 분야 응모 사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고민해야 할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집필 계획과 활동 계획을 명료하게 구분하고 두 영역 모두를 충실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 기준이 분명한 만큼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계획서의 구체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 사업을 통해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 즉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계획서가 기술되면 좋겠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2025년에 시작된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은 묵묵히 자신의 문학세계를 펼쳐나가는 작가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록 소수의 작가만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안타깝지만, 그 작은 씨앗이 한국문학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작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심의위원 일동